

우리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원한다

<총여학생회의 대화 요구에 응하여>

총여학생회의 "제 2 회 인권축제 강연 행사에 대한 입장문"의 대화 요구에 대해 저희 "제 29 대 총여학생회 퇴진 및 총여학생회 전면 재개편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총여학생회에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를 요구합니다.

저희 추진단은 지난 5 월 24 일 은하선 씨의 강연에 대해 이틀 간 1,300 여 연세 학우의 의견을 모아 먼저 대화를 요구하여 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총여학생회는 "우리의 인권은 멈춰 지지 않는다", "총여학생회는 편향되어 있다" 등의 발언과 함께 "어떠한 경우라도 강연을 강행하겠다"라고 결론짓고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총여학생회는 다음날인 5 월 25 일 문제가 공론화되자 역으로 대화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전날에 총여학생회가 보여준 대화 태도를 볼 때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요구라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여전히 본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 추진단은 총여학생회가 이전과는 달리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를 먼저 보여주고, 진심어린 자세로 연세대학교 학생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같이 해결할 것을 역으로 제안합니다.

- 이것은 인권 운동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는 인권 운동에 반대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 역시 모든 사람들의 인권 향상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지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본 사건을 인권 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돌아가며 소모적인 논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추진단은 본 사건의 핵심을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아닌, 연세 학생 사회의 의결 절차 및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본 사건을 통해 오로지 파괴된 연세 학생 사회의 민주적 의결 구조에 대해서만 논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앞으로의 대화를 인권 운동 문제로부터 명확하게 분리하여 민주적 의결 구조를 위주로 논의할 것을 총여학생회에 요구합니다.

- 사실관계에 기반한 논의가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 본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일부 언론 및 SNS 에서 각종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본 문제가 오직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논의되기를 원하고, 총여학생회 역시 이에 동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범죄 사실 및 유언비어에 대해 공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 검증에 같이 앞장설 것을 총여학생회에 요구합니다.

- 1,300 여 학우의 의견이 묵살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총여학생회는 입장문을 통해 사과를 표명했지만 입장문의 발표가 늦어진 것에 대한 사과만 있을 뿐, 강연에 대한 재논의를 주장하는 1,300 여 학우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총여학생회는 학생들의 대표권을 지니는 공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이는 넘어갈 수 없는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1,300 여 학우의 의견을 전면 묵살한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추진단은 진정성 있는 대화로 본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러나 총여학생회가 5 월 24 일 불통의 자세로 대화를 거부한 전적이 있기에, 본 문제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상기한 내용들에 대한 약속을 총여학생회가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추가적인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총여학생회가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를 보여준다면 저희 역시 연세 학생 사회의 재정비, 본 사건에 대한 수습, 총여학생회의 진퇴 문제를 포함한 모든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총여학생회의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를 마지막으로 기다립니다.

제 29 대 총여학생회 퇴진 및 총여학생회 전면 재개편 추진단